

제2호
(Vol. 2)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





안녕하십니까?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학과장 이신호 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10월에 공식 출범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는
국가 산업 및 경제 분야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스마트 건강' 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보건의료산업이 매우
중요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내 유일의 우리 보건의료산업학과의
역할이 점점 확대될 것임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학과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선도 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학기부터 학과 뉴스레터를 매 학기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호 뉴스레터 또한 학과 기자단과 교수님들이 하나가 되어
학과 주요 소식, 국내외 보건의료산업 동향, 노벨상과 보건의료,
보건의료산업체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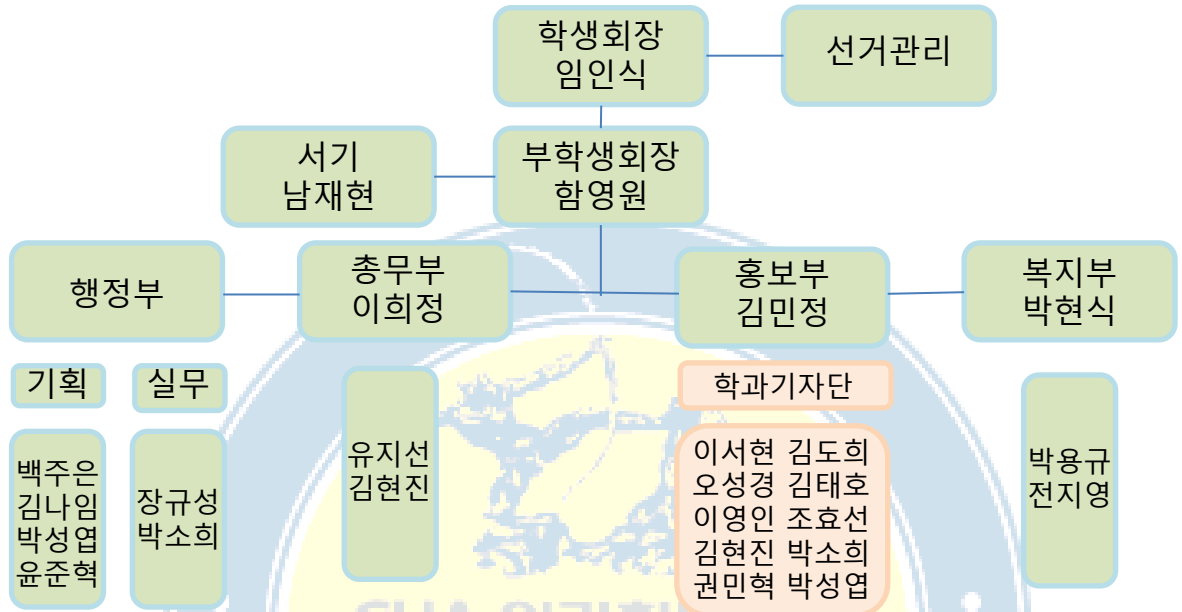
부족하나마 학과 모든 구성원과 학부모님,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산업학과 학과장 올림

학생회

2017학년도 학생회



기자단



개교 20주년 기념식



**2017년 10월 26일
우리 학교가
20살이 되었습니다!**



학교 탄생 20주년을 맞아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 시연회와 함께
1회 졸업생들도 행사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본 행사 후에는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실습발표회



2017년 9월 19일에는 여름방학
동안 다녀온 병원, 의료기기,
제약 기업 등 보건의료산업체
실습 발표회가 열렸다.
3, 4학년 선배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1, 2학년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가을 축제



2017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가을 축제가 진행되었다.
 학생회에서 준비한 행사와 더불어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으로
 해솔 마당에서 전교생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학과는 교수님들과 함께 '보산포차'에서
 보산 가족이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K -Hospital



2017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7년
 K-Hospital에 참여하였다. 국내외
 주요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K-Hospital은
 보건의료산업관련 교류의 장이다.
 사흘 동안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학과를
 홍보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신 보건의료산업 동향 등을
 학습 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

졸업생 간담회

2017년 11월 8일 우리 학과 학생, 교수, 졸업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취업 및 대학원 진학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11학번 양수지(차움), 권경우(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학과),
12학번 이아란(인핏앤컴퍼니), 백은혜(제약·바이오협회) 졸업생이
참석하여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가 특강

2017년 11월 22일과 29일에 보건의료산업 전문가 네 분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박진서 박사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의료 산업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특강을 해주셨고, 양수영 교수님께서 미래 보건의료산업 전문가로서 진로와 리더십 형성 비법에 대해 열강을 해주셨다. 그리고 성공한 선배의 창업스토리라는 주제로 '지극정성시니어케어'의 김춘추 대표님이 고령자 요양 관련 특강을 해주셨으며, 김성갑 교수님께서 화장품 산업의 특징과 향후 전망에 대해 강연을 해주셨다. 강연 중간 중간에 자유롭고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뤄져 학생들이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졸업 후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

보건의료산업 현장 견학



2017년 11월 24일에 재학생들은 교수님들과 함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견학하였다.

오전에 방문한 원주의료기기단지에서는 의료기기단지의 역사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분야로 주목 받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역할 확대와 전망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오후에는 건강보험공단 원주지사로 이동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물관을 관람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번 답사를 통해 재학생들은 보건의료산업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관련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등 졸업 후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예산은 올해 대비 11.4% 증가한 64조 2,416억 원으로, 지원은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 **첫째**,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을 강화하는데 지원된다.
- ✓ **둘째**,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지원 등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충하는데 지원된다.
- ✓ **셋째**,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에 지원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해 98억 원, 국가 암관리를 위해 343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위해 423억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해 546억 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 73,050억 원이 책정되었다.
특히,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설치를 위해서 내년에 14억 원이 신규 책정되었다.
- ✓ **넷째**,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된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생태계 조성을 위해 36억 원,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6억원,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217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내년에 115억이 신규 책정되었다.

착용형 스마트기기 국제표준화위원회 설립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2017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착용형 스마트기기 국제표준화위원회 창립총회를 주관했다. 착용형 스마트기기란, 우리 몸에 부착 혹은 연결된 상태에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를 통칭한다.

착용형 스마트기기 활용 사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7: 5)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용형 스마트기기는 우리 몸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착용형 스마트기기 국제표준화위원회는 2017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간사국을 맡으며 표준화 작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위원회는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한 손동작의 인식 측정과 평가 방법 등 모두 5건의 국제 표준 제안을 계획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착용형 스마트기기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6년에 약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는 초기에 어떻게 자리매김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 분야 특성상, 국제 표준화를 활용하여 초기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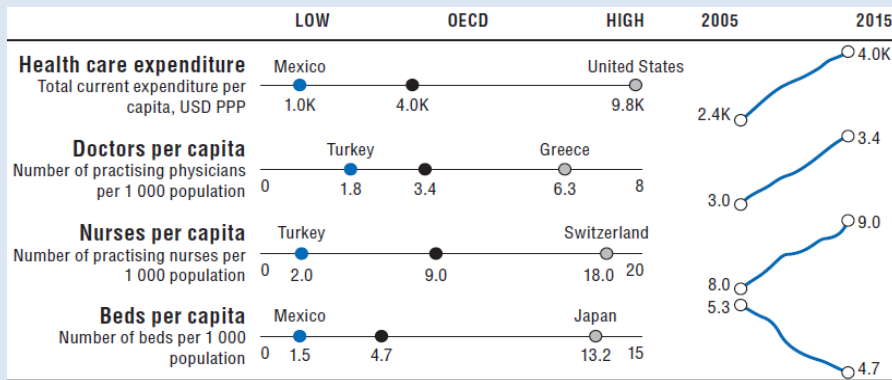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17) "'착용형 스마트기기' 국제 표준화 우리나라에서 시작!", 2017년 10월 27일 보도자료, 세종특별시: 산업통상자원부.

한 눈에 보는 OECD 건강 보고서

2017년 11월, 한 눈에 보는 OECD 건강 보고서(Health at a Glance)가 발간되었다. 보고서는 건강 결정 요인, 의료 서비스 질, 의료비 지출, 의료 인력 등을 중심으로 OECD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시스템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 전반적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만 감소하고 나머지 지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 자원 변화



출처: (OECD, 2017: 29)

그러나 해석의 주의도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의료비 지출이 반드시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상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의료의 질도 그 만큼 향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대장암과 뇌졸중 치료 분야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외래 약제 처방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급성기 진료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차 의료 분야 특히, 만성 질환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글로벌 보건안보 아젠다

글로벌 보건안보 아젠다(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약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처럼 세계가 합의한 보건안보의 핵심 내용을 각 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에 출범하였다. GHSA는 특히 에볼라나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생물학적 무기를 이용한 테러 위험,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위험 등이 단일 국가의 공중보건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짐과 동시에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국제 공조가 절실해진 데 따른 대응의 일환이었다.

2017년 현재 59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운영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매 년 한 번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가 2015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올해는 우간다에서 열려 우리나라 복지부도 2017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보건 안보 분야 논의를 주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2020년까지 백신 공급, 보건안보 인력 강화, 전염병 관리 사업 등에 총 1억 달러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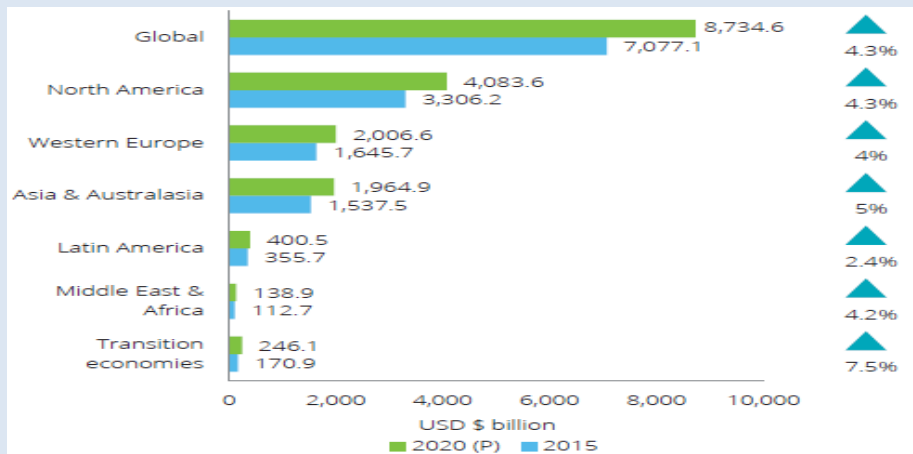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1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간다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논의 주도”, 2017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GHSA(2017) <https://www.ghsagenda.org/> (2017년 11월 20일 접속).

보건의료산업 동향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 전망

영국의 Deloitte는 2017년 글로벌 보건의료전망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세계 보건의료 분야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 약 7조 달러를 초과했던 지출액이 2020년에는 4.3% 증가하여 약 8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구 동구권 국가들과 아프리카 등 예외 없이 모든 대륙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 전망



출처: (Deloitte 2017: 5)

한편, 미국의 Frost & Sullivan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2017년 시장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산업 분야 세계 시장 규모는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하여 약 7조 달러에 가까울 것이고, 이 중 북미 대륙이 약 40%를, 유럽이 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미 대륙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성장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Deloitte(2017) Global Health Care Outlook 2017, <https://www2.deloitte.com/global/en.html> (2017년 11월 20일 접속).

·Frost & Sullivan(2017) "Global Healthcare Industry Outlook 2017", <https://ww2.frost.com/> (2017년 11월 20일 접속).

노벨 생리의학상과 보건의료

▶ 수상자 및 수상 공로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일주율(circadian rhythm)을 통제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 낸 공로로 제프리 홀(Jeffrey C. Hall), 마이클 로스바쉬(Michael Rosbash), 마이클 영(Michael W. Young) 교수들이 공동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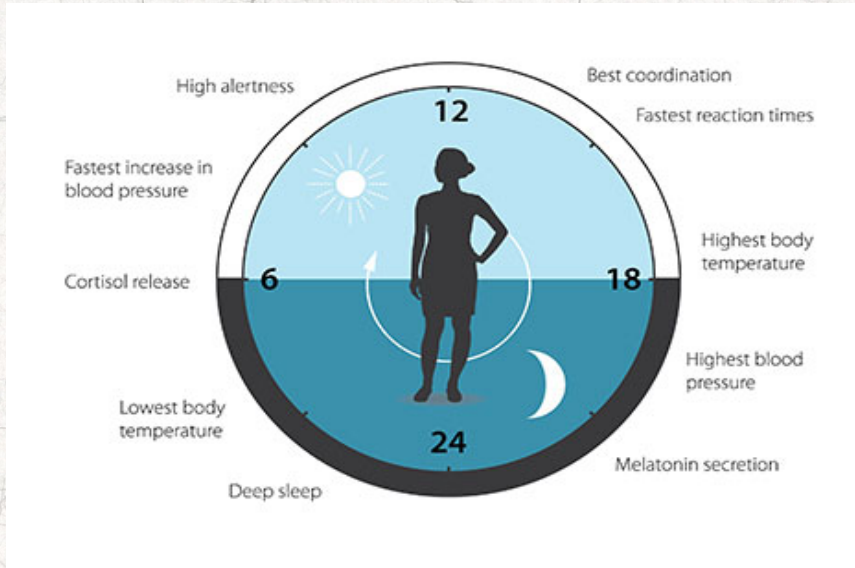
▶ 핵심 원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이른바 생체 시계(biological clock)'를 갖고 있어 낮과 밤에 따라 스스로의 생체 리듬을 달리하면서 지구의 자전에 거의 완벽하게 적응하여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 수준에서 미루어 짐작했을 뿐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세 학자는 초파리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여 초파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주기유전자(period gene)'를 분리해 관찰한 결과, 해당 유전자가 주기적으로 코딩 하는 'PER(period 약어)단백질'이 낮에는 분해되어 소멸 되는 반면 밤에는 세포핵 안에 축적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생체 시계 구성 단백질의 정체도 밝혀내 세포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 메커니즘도 규명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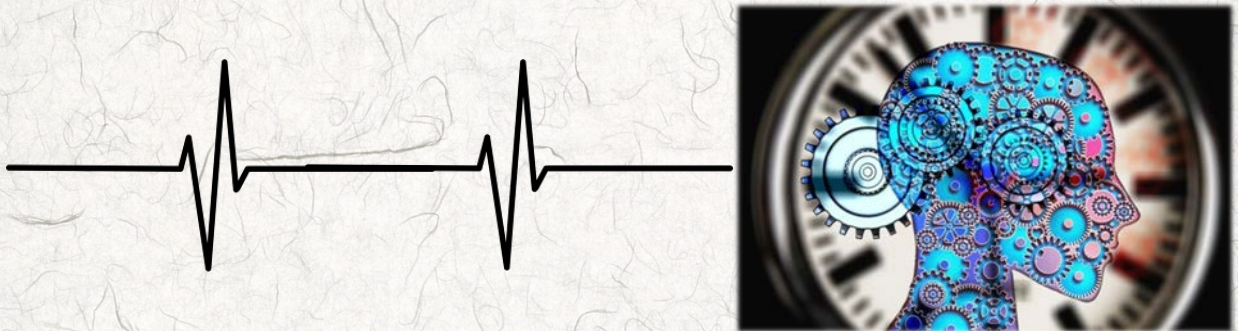
인간의 생체 시계 (Biological Clock)



출처: (Official Website of Nobelprize, 2017)

▶ 생체 시계와 보건의료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전반에 관여하는데 만약, 생체 시계와 환경이 일시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차 부적응(jet lag)과 같은 부작용을, 장기적으로 불일치하면 여러 질병이 발생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생체 시계 원리를 응용한 보건의료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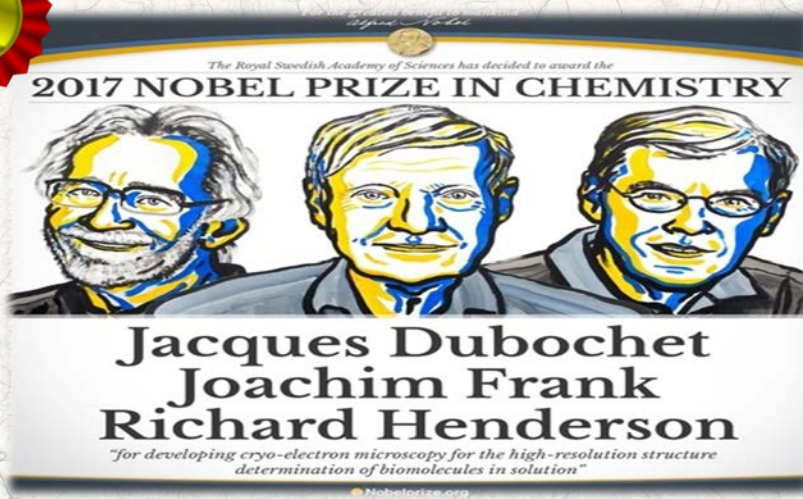
·Official Website of Nobelprize(2017)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2017", <https://www.nobelprize.org/>

·The Guardian(2017) "Nobel Prizes 2017: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ircadian Rhythms", <https://www.theguardian.com/>

노벨 화학상과 보건의료

▶ 수상자 및 수상 공로

2017년 노벨 화학상은 고해상도의 생체분자 영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저온전자현미경(cryo-electron microscopy)을 개발한 공로로 자크 두보쉐(Jacques Dubochet), 요아킴 프랑크(Joachim Frank), 리차드 헨더슨(Richard Henderson) 교수들이 공동 수상했다.



▶ 핵심 원리

과학기술의 발달 역사를 보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데에 영상화가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노 단위 수준의 연구가 확산되면서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가시화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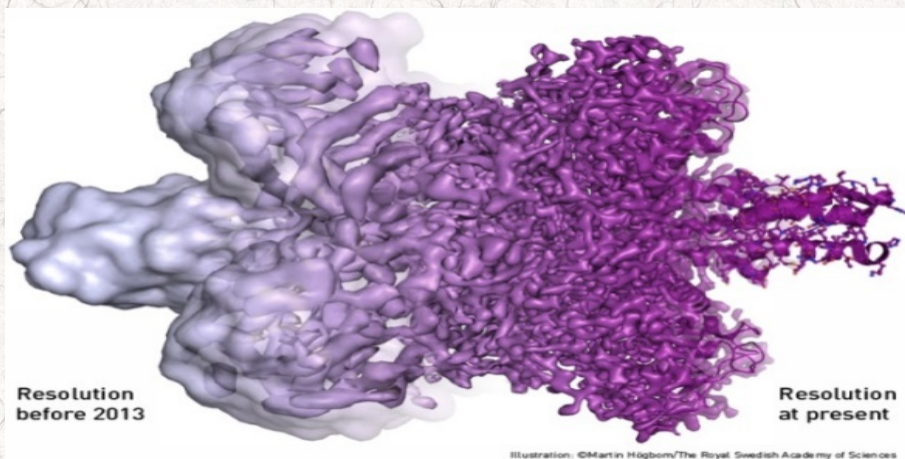
이들이 개발한 저온전자현미경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전자현미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첫째, 전자빔의 강도 때문에 생체물질이 파괴된 상태에서 밖에 관찰할 수 없었던 것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선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D 영상을 해상도가 높은 3D 영상으로 향상시켰다.

셋째, 전자현미경의 진공 부분에서 기화하여 분자를 파괴하는 액체 상태의 물(liquid water)을 유리화(vitrified water)함으로써 진공 속에서도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전자검출기를 사용한 이후의 해상도



출처: (Official Website of Nobelprize, 2017)

▶ 저온전자현미경과 보건의료

저온전자현미경은 유동적인 생체분자를 순간 동결하여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전반 특히, 의약품 개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Official Website of Nobelprize(2017)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2017", <https://www.nobelprize.org/>

노벨 경제학상과 보건의료

▶ 수상자 및 수상 공로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은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리차드 탈러(Richard H. Thaler)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 핵심 원리

주류경제학이 인간을 온전히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의 감정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류경제학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전제하고, 인간이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대안을 선택한다고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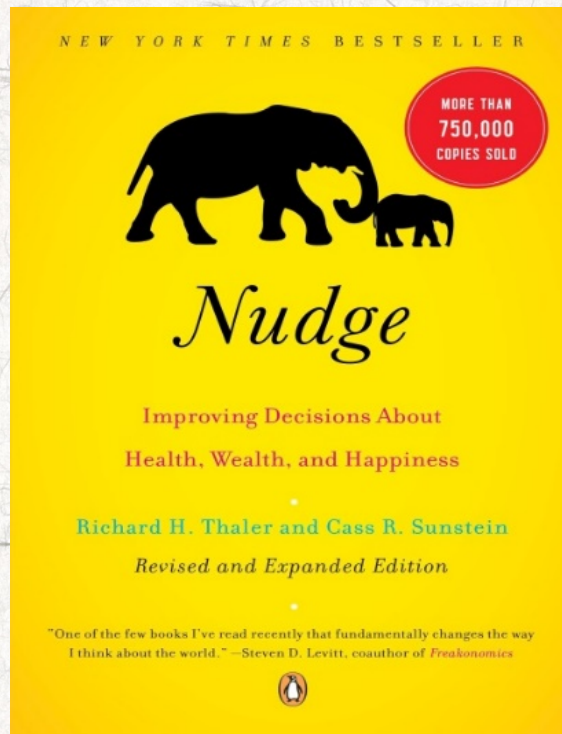
그러나 행동경제학은 합리적 인간 모델에 동의하지 않고, 인간의 비합리성과 그로 인한 인간의 행동 매커니즘 연구에 천착한다. 행동경제학자였던 탈러 교수는 특히, 인간의 특성 중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s), 자기 통제 결여(lack of self-control)가 개인의 선택과 시장 성과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 경제학과 심리학 사이에 가교를 구축해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특정 물건을 소유하지 않을 때 보다 소유할 때 더 아낀다는 소유효과(endowment effect)로 제한된 합리성을, 소비자들의 공정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업이 수요가 많을 때에도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선호를,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통해 자기 통제 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냈다.

특히,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Nudge』이다. 넛지는 팔꿈치로 살짝 짚어서 행동을 유도한다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을 디자인하는데 큰 영감을 안겨주고 있다.

▶ 넛지와 보건의료

탈러 교수의 연구는 인간의 심리적 특징과 행위의 선택 간 이해의 폭을 확장시킴으로써 보건의료 자원의 선택과 소비, 흡연, 비만, 알코올 오남용 등 보건의료 관련 규제 및 시장 활성화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Official Website of Nobelprize(2017a) "Easy Money or a Golden Pension? Integrating Economics and Psychology", <https://www.nobelprize.org/>
·Official Website of Nobelprize(2017b) "Press Release: The Prize in Economic Sciences 2017", <https://www.nobelprize.org/>

에이원

기업

인터뷰

Q: 기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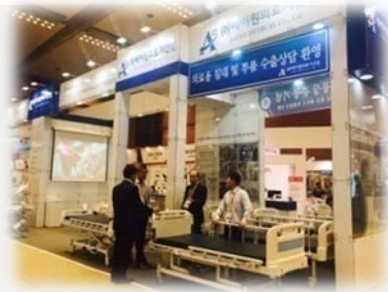
A: 저희 기업은 2004년에 설립되어 주로 의료용 침대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Q: 주력상품

A: 자동 설계가 내장된 의료용 침대입니다.
이 분야에 3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인재상

A: 외국어도 잘 구사하고, 책임감도 강하며 주어진 업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싶습니다.



우영

Q: 기업 소개

A: 저희 기업은 약 20년 전에 설립되어 주로 의료기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Q: 주력상품

A: 주력상품은 자가통증조절장치입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가 진통제 등을 처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재발할 경우 이 장치의 버튼을 누르면 약을 추가로 주입시켜주는 제품입니다.

Q: 인재상

A: 보건의료 전반에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리노셈



Q: 기업 소개

A: 저희 기업은 2007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설립된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Q: 주력상품

A: 주로 몸에 직접 닿는 스텐트나 수술 도구를 멸균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취급합니다. 특히 가스 플라즈마 멸균기가 주력상품입니다.

Q: 인재상

A: 중소기업이지만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을 원합니다.

젬스 메디컬



Q: 기업 소개

A: 저희는 1998년에 코메드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중간에 젬스 메디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DR(디지털엑스레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Q: 주력 상품

A: 주로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특히 KMC-650은 기존 엑스레이 기능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시술장면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인재상

A: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을 학교에서 습득하고 오면 유리합니다.

국제 의료 인턴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년 국제 의료 인턴십에 노다현, 김현정, 정혜지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두 달 동안 차움에서 국내 실습을 마친 후 9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두 달 동안은 미국 할리우드 차병원에서 해외 실습을 하였습니다. 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국제 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 **노다현:** 글로벌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병원 홍보, 마케팅 관련 실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 ✓ **김현정:** 병원 경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환자유치와 의료해외진출 관련 실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 ✓ **정혜지:** 평소 보건의료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과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진출 의료기관에서 실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노다현/김현정/정혜지:** 차움에서는 한 달 동안 행정 등 주요 부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했는데 특히, 외국인 고객을 위한 행정 업무에 대해 배웠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은 글로벌마케팅팀에서 외국인환자 응대와 유치 현황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환자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거나 외국인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경쟁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차움에 접목시켜보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에서는 한국의 병원이 어떻게 미국에 진출했는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매우 다른 미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병원 경영과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LIFE CENTER
The Power to Age Beautifully

Chaum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 **노다현:** 학교 수업에서 이론을 학습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실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김현정:**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며, 특히 국제의료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면 제2외국어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교수님이나 주변 선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잡길 바랍니다.

✓ **정혜지:** 학점, 다양한 자격증, 교내 외 활동과 인턴활동 모두 준비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엇 하나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평소 교수님이나 선배들 그리고 취업지원 센터 등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조언을 많이 듣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조언을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선배들의 천기누설

취업 성공 꿀 팁

(지태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4학년 지태영입니다. 저는 10월 30일부터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 협력사업부 통관 관리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의료기기 수출입을 규제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Q.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A: 강의를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산업 분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 저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의료기기 산업에 취업을 목표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우선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학 중에 의료기기 기업 '바텍'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 기기화장품산업지원단에서 실습을 하면서 의료기기산업 분야 취업을 위해 미리 준비했습니다.

Q. 학부시절에 하고 싶었는데 못해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A: 부전공을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부전공을 준비한다면 융합형 인재로서 기업에서 다양한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Q. 졸업 후 진로를 위해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나요?

A: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전에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등에 불뚱 떨어진 4학년이 되고 나서 취업준비를 하면 늦습니다. 학기 중에는 전공 공부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자격증 1개씩 또는 실습 1회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선배 및 교수님과 꾸준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세요.



Q. 후배들을 위한 조언은?

A: 구체적인 진로를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진로를 목표로 준비한다면 여러 분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 합격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강의 수강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해당 분야로 취업한 선배 및 교수님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의 천기누설

취업 성공 꿀 팁

(전세영, 대한병원협회)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2학번 전세영입니다. 올 5월에 대한병원협회에 입사하여 자원정책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자원정책국은 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등에 병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병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Q.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A: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였던 저는 NCS 특별학습반을 통하여 자격증, 전공 공부, 자기소개서 등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습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께 자소서 첨삭을 부탁하고 면접 팁을 얻었습니다.

Q. 학부시절에 하고 싶었는데 못해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A: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관련 전공자를 우대사항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Q. 졸업 후 진로를 위해 학생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나요?

A: 주어진 학업에 충실하면서 외부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타 대학 학생들과의 스터디를 통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같이 준비하면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면접 경험이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후배들을 위한 조언은?

A: 준비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부딪치면서 스스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 중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취업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부딪쳐 보았을 때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도전하는 것이 스펙이 될 수도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취업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소 일기

(16학번 최성운)

첫 번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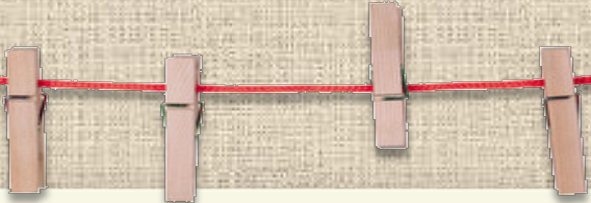
입대 일이 다가와도 별로 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영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인사하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슬펐다. 입대하기 이틀 전에 식발했었는데 입대하니 군대에서 또 머리를 밀어 그때서야 내가 입대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두 번째 주

체력 훈련과 제식 훈련을 받았다. 사회에서는 잘 하지 않았던 팔 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1.5km 뛸걸음 등을 하였는데 많은 종목에서 불합격하였다. 나보다 먼저 입대한 기수들 모자에 이등병 마크를 보니 너무 부러웠는데 이틀 후에 훈련소 수료라는 말에 나는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 앞섰다.

세 번째 주

각개전투 훈련을 받았다. 땅에서 구르니 몸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고 조교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사격 연습을 하였는데 괜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사격 전에 얼차려를 받았다. 사고가 날까봐 일부러 뻥세게 하려는 게 느껴졌다. 얼차려는 싫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달게 받았다.



네 번째 주

오후엔 말로만 듣던 화생방 가스체험을 했다.

가스실 근처로 가기만 해도 벌써 코가 따가워지기 시작했다.

가스실에 들어가니 눈이 따가웠다. 난 원래 눈이 작는데 더 작게 뜨니 눈에는 가스가 별로 안 들어와 버틸 만 했다.

혹시 몰라서 들어올 때 숨은 참고 있었는데 방독면 꺼내는 도중에 숨을 한번 쉬어서 가스를 한 모금 마셨다. 코랑 목이 바로 따갑고 매웠다.

방독면을 벗고 나서 군가를 시켰는데 끝나고 밖에 나와서는 콧물, 눈물에 침까지 흘린 서로를 쳐다보면서 바보 같은 모습에 다들 엄청 웃었다.

다섯 번째 주

3차 전투 뒹굴음을 했는데 단독군장하고 3km를 뛰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총 들고 뛰니까 팔이 부러질 거 같아 등에 메고 뛰었다.

일단 완주 하긴 했는데 좀 무리했는지 많이 어지러웠다. 훈련이 다 끝나고 저녁에 일기를 쓰려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지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완전군장 싸서 밖으로 나가야 했다.

알고 보니 비상소집 훈련이었다. 완전군장 하니까 무거워서

걷는 것도 힘들었다. 이번 주에는 이등병 계급장이 달린 전투모,

약복을 받았다. 짝대기 하나 달겠다고 이때까지 고생한 것들이 생각났고,

이등병 계급장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여섯 번째 주

마지막 훈련인 행군을 하게 되었다. 완전 군장을 하고 20km를 걷는 것이다. 출발하기 전에는 정말 두려웠지만 다 같이 하는 거라 자신감이 생겼다. 마지막 행군 고비만 넘기면 수료이기에 후회 없이 하자고 마음먹었다. 무사히 행군을 마치고 수료식 후 정식으로 이병이 되었다.

가족들이 연병장으로 달려와 이제 막 이병이 된 아들들을 찾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 6주 만에 보는 거라 너무 반가웠다. 6주 동안 고생하면서 가족과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자!



이미지 출처: 육군훈련소 홈페이지(<http://www.katc.mil.kr/katc/>)





여행을 떠나요



기자단 단장 13학번 김태호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친구들과 함께 청계천에서 열리는 서울 빛초롱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하여 총 두 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했는데 축제를 보니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점점 배가 고파오니 자연스럽게 저의 발걸음은 근처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랑리카레'에서 카레와 오므라이스를 먹었는데 인도식과 일본식으로 요리한 것이라서 그런지 향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계속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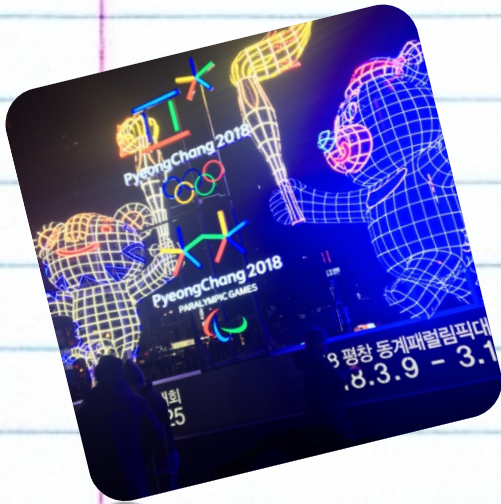
사진은 기차를 표현한 등불입니다.

사실 기차가 주인공이라기 보다 토끼가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형물은 듀라셀 건전지를 표현하고 있었는데 저 토끼는 단순한 토끼가 아닌 듀라셀 건전지 마스코트인 듀라셀 토끼입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등불도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주제로
활용하여 평창올림픽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포동포동하게 귀여운 곰과 마을을 형상화한
등불입니다. 이번 축제에 많은 동물들과 여러
가지 조형물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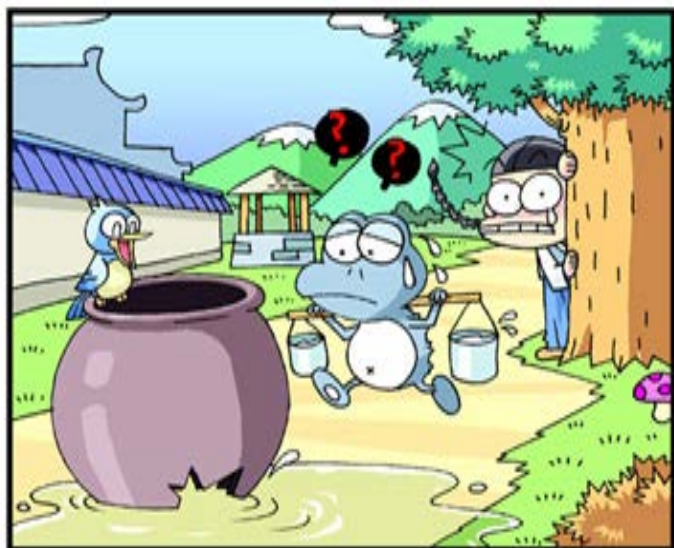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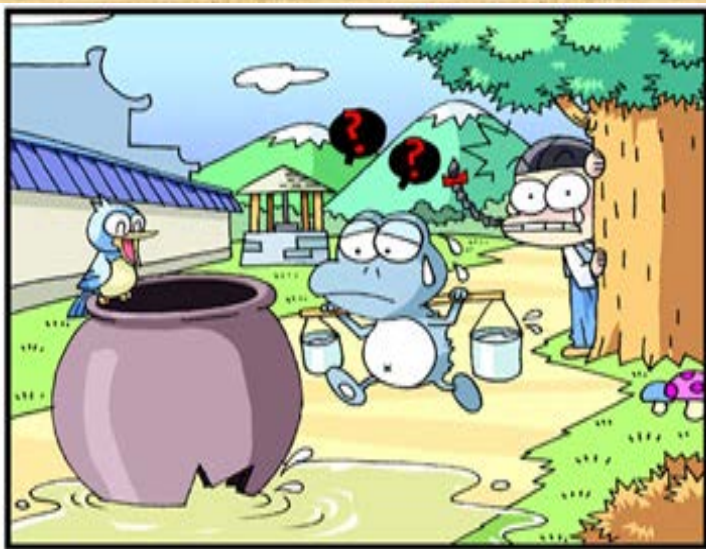
어디 어디 숨었나~^^

숨은 그림 찾기



숨은그림 (안경, 국자, 포크, 깔때기, 물고기, 뉘시바늘, 종이배)

틀린 그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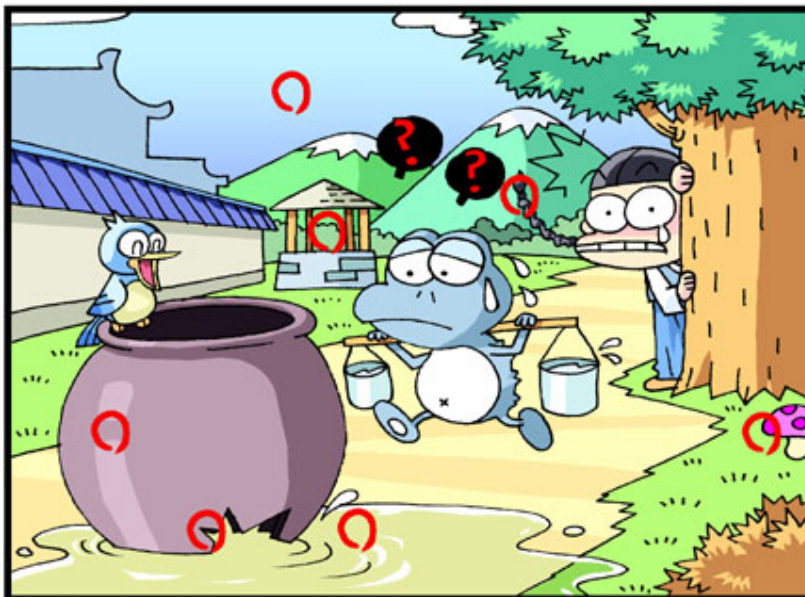


숨은 그림 찾기 정답



숨은그림 (안경, 국자, 포크, 깔때기, 물고기, 낚시바늘, 종이배)

틀린 그림 찾기 정답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 [제2호]

- 발행/편집장: 이신호
- 편집위원: 이신호, 김기성, 정미현, 박승민, 황혜주, 이평수, 한세미
- 작성: 보건의료산업학과 기자단
(김태호, 이서현, 오성경, 김도희, 이영인,
조효선, 김현진, 박소희, 박성엽, 권민혁)
- 디자인: 이영인, 조효선
- 발행일: 2017년 12월 11일
- 발행처: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화: 031-850-8942 / 팩스: 031-543-9917
이메일: qwertyc@chamc.ac.kr
홈페이지: <http://healthcare.cha.ac.kr/>